

법무부, 우수한 난민 청년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9일(수) 주한캐나다대사관, 유엔난민기구(UNHC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리정부가 「난민 교육경로 글로벌 협의체(Global Task Force on Third Country Education Pathways, GTF)」와 협력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학계·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 중인 학업능력을 갖춘 우수한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을 통한 난민 청년의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애슐리 멀로니(Ashley Mulrone)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대리,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은 7월 31일(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강제 이주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국의 「학생난민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난민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정착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국의 ‘학생난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입국하여 현재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장학생 선발 과정과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 경험을 직접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난민 청년들에게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2022년 학생난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6년 1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에 석사학위 과정의 난민 학생 쿼터를 신설하여 학생난민 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서강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학업능력을 갖춘 우수한 난민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개회사에서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잠재력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대학에도 우수한 난민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을 통해 학생난민 프로그램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유엔난민기구도 학생난민의 교육경로 확대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해외 주요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학생난민(교육경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잠재력이 뛰어난 난민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2-2110-4155)
		담당자	사무관	여현도 (02-2110-4161)



□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 (개요)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 '23년 우리나라는 글로벌난민포럼에 참석하여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Operating the Student Refugee Program, SRP)'을 공약으로 제출
- (대상자) 난민캠프 등에서 체류 중인 유엔난민기구(UNHCR) 등록 난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학 입학 가능 학력을 소지한 청년
- (국내 사례)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①'22년 12월 난민학생 2명이 국내 입국하여 현재 대학 학부 과정 재학 중 ②'26년 9월 난민학생 1명이 석사 과정 입학 예정
 - ※ '26년 6월 법무부-서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하여 국내 거주하는 난민 배경 학생 대상으로도 고등교육 지원('27년 1월 학부 과정 입학 예정)
- (해외 사례) 일본은 '16년부터 시리아 출신 난민 대상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시작한 후 아프간,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총 205명 수용), 호주는 '26년 1월 3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학생 수용(약 20명)

□ **제3국 교육경로를 위한 글로벌 태스크 포스(Global Task Force on Third Country Education Pathways, GTF)**

- (설립) '20년 5월 설립된 난민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 (회원) 정부(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등), 국제기구(UNHCR, UNESCO 등), NGO, 기타 관련 단체 포함 20개 이상 기관 참여
- (활동) 정책 자문, 모범사례 수집 및 확산, 연례회의 개최 등

□ **세계 강제실향 현황**(‘25년 말 기준,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동향 보고서 2025(UNHCR Global Trends Report 2025)’ 참고)

○ **(전 세계 강제실향민 현황) 약 1억 1,780만 명**

- ‘24년 말보다 540만 명(4%)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 70명 중 1명에 해당하며, 지난 10년 동안 강제실향민은 2배 이상 증가
- 강제실향민 주요 발생국은 수단(1,190만), 시리아(1,080만), 우크라이나(890만), 아프가니스탄(810만) 順

○ **(전 세계 난민* 현황) 약 4,160만 명**

- *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난민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보호 중인 팔레스타인 실향민 포함

참고자료 2

학생난민 교육포럼 일정

○ 1일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08:30~09:00 30'	참석자 등록	-
09:00~09:30 30'	개회식(개회사)	주한캐나다대사관(대사 대리) 법무부(차용호 출입국본부장) UNHCR 한국대표부(김새려 대표) 통일강원연구원(송영훈 연구원장) ※ 개회사 순서 변동 가능 개회식 후 주요 내빈 사진촬영
09:30~10:15 45'	글로벌 강제 실향 및 교육 경로 정책 동향	UNHCR 아·태지역본부
10:30~12:00 90'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필리핀'의 학생 난민 프로그램 소개	법무부(난민정책과장) 학계·민간단체
12:00~13:30 90'	오찬	-
13:30~14:50 80'	학생 난민 프로그램 참여 경험	학생 난민(서강대 재학)
15:00~16:45 105'	휴식, 문화 활동(예정)	-
16:45~19:00 135'	차담회 및 폐회	-

○ 2일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08:30~09:00 30'	참석자 등록	-
09:00~11:00 120'	대학 후원 모델 및 국제 사례	ISOW ¹⁾ (International Students Overcoming War)
11:00~12:00 60'	오찬	-
12:00~13:50 110'	한국형 교육 경로 구축 방안 논의	각 기관
13:50~14:00 10'	폐회	-

1) 난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진학을 지원하는 캐나다 학생 주도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
<http://www.isow.ca>

○ 3일차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09:30~09:50 20'	참석자 등록	-
10:00~12:00 120'	난민의 이해 및 주요 동향 교육	미정
12:00~13:00 60'	중식 및 단체사진 촬영	-
13:00~14:15 75'	난민 고등교육 지원 사례	ISOW (International students Overcoming war)
14:15~14:30 15'	휴식	-
14:30~15:45 75'	난민 지원을 위한 학생 리더십 사례	ISOW (International students Overcoming war)
15:45~16:00 15'	휴식	-
16:00~18:00 120'	한국형 교육 경로 발전 방안 관련 그룹 토의	참석자 전원
18:00~18:15 15'	폐회	-